



[바이오]
대웅제약, 英 아박타와
줄기세포면역치료제
조인트벤처 설립
L2



Life

[AI뉴스]
임영익 인텔리온연구소 대표
“20분 계산 시로 6초만에
올해는 리걸테크 원년”

L4



여의나루~동작역 한강수변길 보행친화공간 투시도.

/서울시

# 여의나루~동작역 5.6km 수변길 ‘변신’ 건축·조경 합쳐진 한강변 놀이공원

보행로 연결해 녹지·한강 조망
야외 전시 공간·석양 전망 데크도

서울 한강대교 남단 수변길이 걷기
편한 여가 공간으로 변신한다. 비좁고
낙후된 보행길이 넓어지고 녹지 공간
도 생긴다.

서울시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한강코드’
(랩디에이지 조성설계사무소)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여의나루역에서 한강
대교를 지나 동작역으로 이어지는 5.6
km 길이의 한강 수변길이다. 당선작은
바코드를 콘셉트로 한강변 보행로를
하나의 선형 공간으로 구성했다.

한강코드는 여의나루역과 한강 유람
선 선착장 사이 보행로를 연결해 시민들이
한강변을 걸으며 녹지를 즐길 수 있

도록 계획했다. 셋강과 한강이 만나는
‘포켓 공간’에는 벤치 등 휴게 공간을 설치해
시민들이 쉬면서 셋강의 조류서식
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강철교 접근 구간은 보행로를 확장하고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다층의
석양 전망 데크를 배치했다.

노량대교 하부 공간에는 야외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달
았다. 다리 밑 보행로를 확장해 플랫폼
광장을 만들고 수변 공간 주변에는 계
단형 광장을 뒀다. 노량대교 인근 아파
트단지에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
리하는 벽을 세울 계획이다. 반포천이
합류되는 지점은 물이 있는 조경 공간
으로 꾸민다.

심사위원회는 “한강코드는 물과 수
직으로 만나는 조경의 여러 전략이 디
자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우수하
인”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당선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시는 올해 6월까지 설계용역
을 완료하고 7월 착공해 2021년 6월 준
공한다는 목표다.

시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가 완성되면
한강의 풍경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이 일대 부족했던 공원 여가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설계공모 당선작은
2월 말까지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
한 서울도시건축관에 전시된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은 기존
보행로를 활용해 진행되는 새로운
유형의 수변 도시재생 사업이 될 것”이
라며 “보행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공
미술, 건축, 조경이 합쳐진 연계 사업
을 통해 한강 수변을 재밌는 놀이 공간
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인천공항공사, 노상주차장서 주차료 받아

주차장 설치 없이 내대지서 영업
시설주차대행업체와 상생 요원

겨울방학 등 항공성수기를 맞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인천공항 주차
장이 포화되자 공항공사는 공항화물청
사역 인근에 조성중인 주차장에 해외
이용객이 맡긴 발렛차량을 주차해 물
의를 빚고 있다. 공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시설주차대행업체가 정식 주차장
이 아닌 노상주차장을 하면서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천공항공사가
홍보해 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 문제
가 크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현장은 운서
동 3211번지 일대. 지난 2일 찾아간 현
장의 바닷은 흙과 쇠석으로 다짐이 되
어 있는 상태로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
은 내대지에 수 백대의 차량이 주차되
어 있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
곳은 임시주차장이라고 말했다.



47개 주차업체가 가입한 인천공항주차협동조합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100일 가까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지만 공항공사는 대화의 창구를 열고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주차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서비스팀 관계자에 따르면
‘아스팔트 등으로 노면시설과 펜스를
설치해 구역을 구분하고 보안시설과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한 주차시설에
한해 장기주차장과 같은 주차요금(1일
9000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차 현장은 노면시설은 물론 보안시
설도 없고 진·출입 차단시설만 설치되

어 있었다.
주차시설은 공항시설 설치사업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
획을 수립해 서울지방항공청(이하 ‘서
항청’)에 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
지만 서항청 담당자는 “해당지역에 사
업계획에 대해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해외여행객이 몰리는 하계와 동계성
수기에 인천공항은 주차장 혼잡으로 흥
역을 치른다. 장기주차장의 이용률이
105%가 넘으면 직접 주차하려는 일반
고객들을 공항공사 잔디밭으로 안내해
주차료를 받지 않고 주차하게 하고 있
다. 장기주차장이 포화됨에 따라 인천
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 공식주차대행
업체에 차를 맡기면 대부분 공항공사가
조성한 외곽 주차장에 주차시킨다. 공
항공사가 벌어들이는 주차장 수입만
년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취재본부 김창근 기자 mirex@

# 경기도 “3기 신도시, 복합자족 도시로”

교통·에너지·단지내 공원 등
3기 신도시 로드맵 구체화 돌입

경기도가 ‘교통이 편리한 복합 자족
도시’에 중점을 둔 ‘3기 신도시’ 로드맵
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3기 신도시 TF’를 시행
자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함께 동참
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실정을 보다 자세
히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수도권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3기 신
도시 등 24곳이며, 전체 주택 공급 물량
30만 호 중 약 80%에 해당하는 24만 호
에 달한다. 이 중 LH와 경기도시공사
공동 추진사업은 3곳(하남교산, 과천과
천, 안산장상), 경기도시공사 단독 시행
은 4곳(광명테크노, 용인플랫폼, 안양
관양, 안양인덕원)이며, 기초지자체 지
방공사 참여까지 고려 시 역대 주택공
급정책에서 지방 참여 최고 수준이다.

도는 지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년
3개월여 간 중앙 건의와 정책협의를 진
행,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지방 참여 비율이 각각 35%와 45%로
최종 확정됐다.

도는 직주근접 도시 조성을 위해 ‘신
도시에 신산업’ 전략으로 신도시 발전



경기도 3기 신도시 위치도

방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으로, 기관
간 주력할 수 있는 역할 분담안을 구체
화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올해 안에 지
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 있
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점을 두는 부분은 ▲미래 주
택유형 도입 ▲공공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역세권 중심 배치 ▲주요 철도 등 교통
대책의 최적화 ▲복합적 모빌리티 교
통수단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위한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 등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지구
계획수립 및 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LH와 시행자 간 역할 구체화
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재
무 여건 등을 감안한 기초자치단체 지
방공사의 사업 참여도 순차적으로 협의
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철 기자 kimsy@

# 서울시, 설 맞아 하도급 대금 체불 단속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장 14곳 대상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13일부터
2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을 집중 단
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 14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
별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공사 대금
집행·이행 실태와 근로계약서 및 건설
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확인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요구·영업
정지·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2017~

2019년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액
161억5000만원을 해결했다.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투입해
체불 현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지난
3년간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 124차례
를 실시하고 8700만원의 체불을 해소
했다.

고승호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
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역대금 등 각
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
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역 일대 낡은 집 고치고 에너지 효율 높여

수리 후 에너지 소모량 33% 줄어

서울시는 용산구 서계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16가구를 대상으로 노
후주택을 수리해주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에너지 소모량이
평균 33% 줄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 수리와 에너
지 효율 개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
행됐다. 시는 노후주택 수리비용 1억원
을 지원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에너지 진단 플랫폼을 활
용해 가구별 맞춤형 에너지 컨설팅을
실시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단열재·
보일러 교체,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에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후 모습. /서울시

지 효율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300
만원씩 총 4300만원을 지원했다.

시가 사업 전후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확인한 결과 에너지 소모
량이 평균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건물 종류별로 에너지효율 등급이
약 2등급씩 올랐다. /김현정 기자